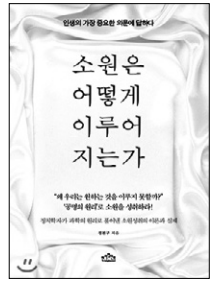


# 소원 실제 깨달아 판단력 기르면 성취 가능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천주 지음  
인라잇먼트 펌  
1만5천원

누구에게나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가지씩은 있다. 돈 명예, 사랑... 등등. 그러나 막상 그런 꿈과 소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원을 이루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루내고 싶은 소원의 실제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소원성취'의 해답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과학적인 논리와 이치로 풀어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제시한 소원성취 방법인 '소리공명 튜닝'과 '관계공명 튜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 유명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세종대왕과 링컨, 헤먼 스넵과 이혜인 수녀 그리고 스타벅스 CEO 하워드 숄츠 등도 '튜닝'을 통해 소원을 성취했다. 첫 단계인 소리공명 튜닝은 자성을 변화시켜 퀴텀점프를 이루내는 방법이며 그 다음 단계인 관계공명 튜닝은 소리공명 튜닝을 통해 변화된 자성으로 새로운 관계의 장을 형성해 원하는 바를 이루내는 원리다.  
튜닝은 내 소원을 포함할 수 있는 큰 소원의 원천과 주파수를 맞춰 그러한 힘과 합일

하는 방법이다. 양자물리학이 증명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바탕으로 '퀴텀점프'를 이뤄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뤄 더 높은 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원성취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소원이 있고 꿈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소원을 성취하는데도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에 한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우주라는 홀로그램의 일부이자 그 자체라는 '전일성'의 원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다. 또한 '함께 울린다'는 뜻의 '공명' 원리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공명임을 알려줌으로써 과학적 논리와 이치로 풀어내고 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불행수집기'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과 올바른 판단능력을 갖추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튜닝'이라는 명상법이자 기도법을 올바른 느낌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자기개발법으로 제시한다. 튜닝의 본뜻인 '조율'이 핵심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중 가장 예민하고 믿음직한 감각인 청각을 이용한 기도법이자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원을 이루는데도 과학적 법칙 있어  
'전일성'과 '공명' 원리...성취 비결  
링컨 등 유명인들 '튜닝' 통해 성취

소원한 만큼 진화할 수 있다  
모든 종의 정보가 통합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종은 간절한 소원의 결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 놀라운 진화를 이뤄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진화할 수 있으며 지금도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소원은 '공명' 통해 이뤄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함께 울린다'는 뜻의 공명은 모든 물체를 비롯한 생명체가 모두의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진동수를 만나면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는 공명의 원리를 이

용해 문제가 전제가 되고, 불치병을 치료하며, 마음먹은 것을 이룬은 물론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실제 사례들과 동서양에서 발견되고 정립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내고 있다.

이후 소원이 하나 이뤄지는 것 아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의 소원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먼저 분별력, 추진력 그리고 판단력을 높이는 법을 알려주고 다음으로 '소리공명 튜닝'이라는 명상법이자 기도법을 가르쳐준다. 또한 소원관계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서 '관계공명 튜닝'이라는 놀라운 소원의 기술을 알려준다.

두 가지 튜닝법을 익혀 '퀴텀점프' 하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생활 속에서 공명과 전일성의 체험을 이끌어내고, 모든 재앙을 소멸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튜닝'이다. 튜닝의 원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튜닝의 본뜻인 '조율'이 핵심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튜닝이라고 한다. 튜닝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 청각을 이용해 소원을 이루는 최선의 기도법이자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연마할 수 있는 자기개발법이다. 이 책은 과학적 법칙이자 방법인 소리공명 튜닝과 관계공명 튜닝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 방송인이 가까이서 바라본 부탄의 속살과 행복지수

행복한 라디오

리사 나폴리 지음 | 김유미 옮김  
수이북스 펌 | 1만3500원



2010년, 영국에 있는 유럽 신경재단(NEF)이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부탄. 국민 100명 중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 부탄은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일까.

이 책은 저자가 우연한 기회에 부탄에서 일하게 되고, 부탄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 가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담은 책이다. 라디오 뉴스 리포터로 일하던 저자는 삶의 무게가 짓눌려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랜 방송 생활은 그녀의 모든 경험을 뉴스 아이템으로 전락시켰고, 인간관계를 뉴스 자원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미디어라는 이름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색안경이 그녀를 지치게 하고 있었다. 게다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은 분명 무언가 잘못 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부탄에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부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부탄을 오가며 실제로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화려한 구호나 마케팅이 만들어 낸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이 책에 담담히 써 내려갔다.

그녀가 가까이에서 바라본 부탄이라는 나라는 낯설지만 했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왕과, 그런 국왕의 결정을 환영하기보다는 망연자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화폐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총생산(GDP) 대신 국민 총행복(GNH)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온 국왕은,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경제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모든 여행자에게 하루에 200달러씩의 세금을 물리는 것도 독특했다. 너

무 많은 여행객이 입국하면 자신들만의 문화를 해치고 자연이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사실 부탄 여행이 허가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고, 국제 화폐, 도로, 학교, 공항, TV 등은 모두 그 이후에 도입된 것이었다.

그녀가 부탄에서 해야 할 일은 부탄에 처음으로 문을 연 라디오 방송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다. '쿠주 FM'이라는 이름의 이 방송국은, 방송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의 요청을 받은 황태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세워졌다. 비록 저자가 일하던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에 비하면 시설이 보잘것없었지만 운영 방식과 정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디어에 지쳐서 부탄행 비행기에 오른 저자는 아직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희생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순수함에 마음을 열며 잘 적응해 나갔다.

그렇다면 급격한 변화에 맞닥뜨린 부탄은 과연 행복을 이어 갈 수 있을까? 서구 문물은 빠른 속도로 부탄에 상륙했다. TV와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며 사람들은 점차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전통 문화 대신 서양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점차 돈이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서양 국가로의 이민을 동경했다.

저자는 부탄의 긍정적인 면만을 포장하지 않는다. 부탄 사람들이 침묵하는 네발계 이민자들의 문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에 대한 동경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컨설팅 회사에 국가 발전 청사진을 의뢰한 정치인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부탄의 감춰진 면도 바라보고 애쓴다. 김주일 기자

## ▲저자 리사 나폴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동체의 심층부를 파헤치는 일에 매력을 느껴 언론인이 되었다. CNN, MSNBC, 「뉴욕 타임스」 등에서 리포터 및 칼럼니스트로 일했으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40대에 접어들어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부탄을 알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부탄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현재는 뉴욕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며 부탄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 평소 생활 습관부터 바꾸면 인생 심플해져

심플한 생활의 권유

마쓰노 슈요 지음 | 김혜진 옮김 | 대난출판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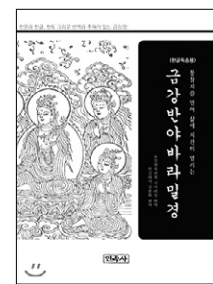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심플한 인생을 위해 먼저 자신을 바꿀 것을 권유한다. 저자는 평소의 생활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습관과 관점을 약간만 바꿔도 마음이 쉼과,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 지침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상, 좌선 등 정신집중의 수행방법인 '선(禪)'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조동종 켄코지의 주지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선 사상과 동양적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의 정원' 창작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저자가 이 책을 통

해 전하고자 하는 선의 철학은 너무나 소박하고 간소하다. 저자는 선이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근본이 되는 가르침으로 즉,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습관이며, 사고방식, 삶의 지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학적으로 어렵게 풀어진 '선'의 사상을 덧입힌 책을 몇 권 읽기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100가지 단순한 삶의 실천을 통해 가벼운 수행의 자세를 권하고 있다.  
저자는 책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잠시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선적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쉼과 가벼워지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멍하니 있는 시간 갖기' '15분 일찍 일어나기' '아침 공기 제대로 맛보기' '벗은 신발 가지런히 놓기' '글자를 정성껏 쓰기' '식사 소홀히 하지 않기' '맨발로 생활해보기' '천천히 호흡하기' '저녁노을 바라보기' '물건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기' 등 심플한 인생을 위한 100가지의 선적 생활을 제안한다. 김주일 기자

# 초심자 독송 위해 편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한글독송용)

요진천축삼장 구마라집 한역 | 김중학 편역  
민족사 펌 | 9천원



경전 독송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많이 하는 수행법 중 하나다. 그러나 한문으로 된 경전 원문을 읽고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글로 풀이된 경전을 본다고 해도 그 뜻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다. 이번에 민족사에서 출간된 한글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경>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다. 따라서 독송 하면서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의경전이자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이다. 하지만 그 심오한 깊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접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느낀다. 이 책은 이러한 거리감을 없애고 쉽게 이해함으로써 독송을 생활화하기

에 적합하게 한문과 한글, 현도, 그리고 번역과 주해가 일목요연하게 편집되었다.

한글번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 초심자도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골라 선택했다. 저자인 김중학 선생은 이 책을 초심자들의 금강경 독송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했다고 한다.

이번 책은 저자가 2007년부터 수차례 수정 보완해 범보시하던 것을 독송용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한역고려조대장경각판 영인본 중 구마라집 스님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하고 행법 자수소명태자의 삼십이분과에 따름으로 인한 몇 곳 외에는 한역고려조대장경각판 행법 글자수와 같게 배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독송용 경전과 다른 곳은 난외에 따로 표시를 했다. 또한 2009년에 발간된 대한불교조계종 표준금강경에는 있으나 이 책의 저본인 고려조대장경각판본에는 없는 것도 별도로 표시해 초심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고 있다. 권말에는 금강경 전체 줄거리에 대한 해설과 정리, 독송을 하는 방법도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교·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합니다